

강진 마량서 내달 대규모 전국 바다낚시대회 개최

남해안 해양관광레저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강진군이 대규모 전국 낚시대회를 연다.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10월 27일과 28일 강진 마량항 일원에서 ‘혼다배 마량항 감성돔 낚시대회’와 ‘제1회 강진군수배 마량항 갑오징어 낚시대회’를 각각 개최한다.

그동안 강진군에서 추진했던 바다낚시어선 유치는 강진군의 민선 8기 60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지금까지 수산, 양식 등 1차 산업 위주의 어촌 경제를 3차 산업인 해양 레저관광으로 전환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한다는 전략에서 출발했다.

1~2톤 정도의 낚시어선밖에 없었던 마량항에 지난 6월 9톤 이상의 첫 낚시어선 유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척의 어선을 유치해 월 평균 40명에 불과했던 낚시 방문객이 7월 1천206명, 8월 1천271명 총 2천477명의 낚시객들이 늘어났다. 이를 계기로 강진군 마량항이 전국

적인 낚시 메카로 각광받기 위해 전국단위 바다낚시 대회를 연속 이틀간 개최한다.

10월 27일은 SDN·혼다가 주최·주관하며 감성돔을 대상 어종으로 ‘혼다배 마량항 감성돔 낚시대회’, 28일은 강진군이 주최하고 SDN, 강진군낚시어선협회가 주관하며 갑오징어를 대상 어종으로 하는 ‘강진군수배 갑오징어 낚시대회’를 전국 낚시객들을 대상으로 대회를 펼치며 SDN이 주최하는 혼다 서비스 캠페인 및 해양박람회도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서 감성돔 낚시대회는 참가비 13만원, 갑오징어 낚시대회는 참가비 10만원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10월 4일 낮 12시부터 운영사무국에 접수하며 감성돔 낚시대회는 선착순 150명, 갑오징어 낚시대회는 300명, 지정 입금계좌에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를 마감한다.

/박종욱 기자



남해안 해양관광레저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강진군이 대규모 전국 낚시대회를 연다.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10월27일과 28일 강진 마량항 일원에서 ‘혼다배 마량항 감성돔 낚시대회’와 ‘제1회 강진군수배 마량항 갑오징어 낚시대회’를 각각 개최한다.

/강진군 제공

무안군, 온택트 지적측량
성과검사 체계 도입 운영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적측량 업무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온택트(ontact) 지적측량 성과검사 체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택트란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군은 작년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지적측량 검사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군은 기존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 결과도 및 성과도를 종이로 출력해 검사를 요청하고 교부하던 방식에서 성과검사 과정 일체를 온택트 성과검사시스템에 의해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윈스톱 처리한다.

2023년 일반 측량민원을 포함해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사업 ▲농업용 배수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검사가 요청된 2천600필지에 대해 온택트로 처리해 업무시간 단축 및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고민재 기자

영암군, 2024년 세출예산 구조조정 착수

영암군이 국제 및 지방세수가 크게 감소됨에 따라 지방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내년 예산안을 역대급으로 초긴축 편성하기 위해 모든 사업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간보조금을 감축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지난 6월 중앙정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정부예산 긴축재정 운용 기조에 발맞춰, 영암군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22년 민간보조금 660건 982억원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해 8월에 마무리했다.

이에 일몰 81건 46억원, 사업변경 40건 11억원, 감액 41개 42억원에 대한 민간보조금 혁신방안을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를 상대로 최근 영암군 왕인실에서 두 차례 걸쳐 설명

회를 가졌다.

또한, 2024년 민간보조사업 편성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군 자체 민간 보조사업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해 교육까지 마무리했다.

영암군은 농업군으로 농·축·임산 분야를 포함해 민간보조금이 동종 자치단체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고강도 보조금 관리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여기에 국제 및 지방세수가 크게 줄어들어 내년 교부세가 줄어들 전망이고 인건비, 공공요금, 물가 등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세출에 대한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대불국가산단이 노후화 돼 지속적 정비가 필요하나 국비사업에 대한 군비 매칭이 열악한 군재정에 크게 가중되고 있어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기철 기자

신안군-부산 금정구, 자매결연 협약 체결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최근 금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안군-부산 금정구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우량 신안군수와 김재훈 금정구청장, 구·군의회 의원, 재부 신안군항우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자치단체는 행정·문화·예술·체육·경제 등 다

양한 분야에서 교류의 폭을 넓히고, 지역축제와 각종 행사 시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 문화 체험 교류로 상생발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아울러 신안군 입자도를 금정구의 명예섬으로 공유할 것을 합의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행복지수와 건강지수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1004섬을 만들기 위해 섬마다

정원을 조성하고 꽃을 가꾸며 1도 1뮤지엄을 만들어 세계적인 문화 예술의 섬으로 거듭나고 있는 신안군과 함께 “양 지역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더불어 행복한 자매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19개 자매도시와 9개 명예섬을 공유했으며 현재 전국 지자체와 자매결연 체결 및 명예섬 공유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장흥근 기자

목포시, 목욕·이미용권 지급 확대 추진

목포시가 대표 노인복지사업 중 하나인 어르신 목욕·이미용권 지급 매수를 연 24대에서 연 33대(장당 5천원)로 확대 지급한다.

시는 목욕·이미용권 사업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 올해 4분기(10월)에 월 3대 지급으로 확대 시행하며, 오는 2024년부터 1·2·4분기 월 3대, 3분기(여름) 월 2대, 총 33대를 지급

하게 된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사항인 목욕·이미용권 지급 확대 추진은 불가상승에 따른 어르신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목포시 목욕·이미용권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표적인 노인복지사업으로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2만 3천여명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지역 내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확대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목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사업을 펼쳐 노인들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태 기자

함평모악산 꽃무릇축제 폐막

제24회 함평모악산 꽃무릇축제가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최근 폐막했다.

함평군에 따르면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한 함평모악산 꽃무릇축제는 비가 오는 늦서늘 속에서도 3일간 2만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용천사 꽃무릇공원 일대에서는 붉은 꽃무릇의 향연에 관람객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함평군이 주최한 만큼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포토존과 체험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했다.

한국의 자연 100경의 꽃무릇 군락지를 둘러볼 수 있는 숲나들이 체험, 꽃무릇 손수건 만들기, 꽃무릇 캘리 부채만들기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보여 방문객을 사로잡았다.

/이문수 기자

